

“사립미술관 살 길은 특화와 재미”

광주 찾은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사립미술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특색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8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 강의 차 광주를 방문한 이명옥 서울 사비나미술관 관장(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은 지역 사립미술관들이 끊임없이 전시 주제를 고민하고 관람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비나미술관은 최근 전국 최초로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미래형 미술관의 모습을 제시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는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는 화면에 실제 미술관 내부를 보여준다. 마우스를 이용해 각종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작품 앞에 서면 큐레이터의 음성 해설이 시작된다.

이 관장은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요즘 시대에 미술관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다른 미술관이 아닌 스마트폰”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람객들이 계속 미술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의 장점으로 일회성 기획 전시를 영구적으로 볼 수 있고 미술관 입장에서도 아이키브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자금력을 지닌 큰 미술관이 많아 우리 같은 중소형 미술관들은 관객 선택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 끝에 다른 미술관들이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약 20년 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사



주제기획전·온라인 전시

수학·과학 융복합展 선택

“미술관도 서비스 기관

관람객에 재미 선사해야”

비나 갤러리를 개관하며 미술 기획전시 에 발을 들여놓은 이 관장은 당시 한국 화랑계에서는 이례적인 기획전 전문 갤러리를 표방하며 주목을 받았다. ‘미술 속의 동물’(1996), ‘밤의 풍경’(1996), ‘교과서 미술’(1997), ‘임팩트’(1998), ‘일기

예보’(2000) 등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선정·전시하며 주제기획 전시를 선도했다.

“그때는 갤러리들이 잘 팔리는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했지 지금까지 주제 정해 전시회를 여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비나갤러리를 통해 기획전 전시를 시도해 보고 싶었죠. 생각보다 관람객들이 많고 다른 갤러리들의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2002년 종로구 안국동으로 이전하며 사비나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이후부터는 ‘소셜 네트워크 아트: 예술, 소통방식의 변화’(2012), ‘3D프린팅&아트’(2014) 등 예술과 수학, 과학의 융복합을 시도한 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춰 미술관도 변해야 한다”며 “미술관은 서비스 기관이며 결국 관람객들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장은 현재 105개의 사립미술관을 회원사로 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 사립미술관에 대해 “사립미술관은 사진 전문인 서울 ‘대림미술관’이나 미디어아트만을 다루는 ‘아트센터 나비’처럼 자신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같은 작가라도 보여주는 방식을 달리하는 등 관람객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붙잡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페를 입점 시킨 우제길 미술관처럼 사립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야 한다”며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전시 콘텐츠를 감상하고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

정준모씨 “미인도, 위작 아니다”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전직검사 “위조” 주장 이어...진위 논란 재연

전경자 화백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미인도’ 진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 화백은 생전에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추모식을 마련한 유족 측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1999년 전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전문위원 권모씨를 수사했던 전직 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작품이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는 위작 시비가 불거졌을 때, 이를 반박했던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국현) 학예실장이 위작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씨는 시사저널 최신호에 ‘나비와 여인은 왜 미인도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0년 1월 금성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현대미술전집’에 해당 작품이 흑백 도판으로 이미 수록돼 있다”고 적었다.

그는 “권씨는 1984년에 위작을 그렸다고 주장했지만, 미인도가 국현으로 이관된 것은 1980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일 “미인도 사건이 터진 것은 1991년 4월인데 위작이라면 어떻게 1년 전에 나온 책에 그림이 실렸겠는가”라며 “그림은 적어도 1979년 10월 26일 이전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수중에 들어갔을 텐데 위작이라면 그 슬라이드가 어디에서 나와 도록에 들어갔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10·26 사태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이 발견됐다”며 “어깨에 나비가 앉은 여성을 그린 이 그림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로 넘어가 국가로 환수됐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권씨가 1980년 이전에 미인도



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그가 보고 배웠다는 작품 ‘장미와 여인’의 제작 연도는 1981년이어서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스로 위작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 사람들의 호기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위작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그를 불러 그려보라고 하면 될 일이나 생방송에 출연해서 실연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담빛예술창고 한중교류전

작가 21명 참여...4일~12월 3일

최근 오랫동안 방치된 쌀 저장창고에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담빛예술창고가 특별 기획전 전시 한중교류전 ‘살-공명’을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 11명, 중국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보여준다. 특히 100회 이상 대작들을 주로 선보이며 중국과 한국의 현대 미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해성 작가는 각기 다른 모습의 여인 3명이 등장하는 회화 ‘Another world’를 출품한다. 순수한 소녀,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여성 등을 통해 삶과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출신 윤일권 작가는 회화 ‘친구’는 상체를 탈의한 거구의 남자의 머리에 꽃을 단 검정색 개를 대비시키며 관계와 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윤일권 작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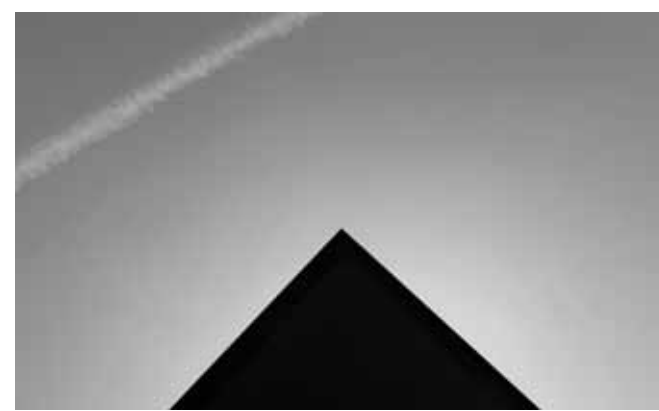
사진작가 리일천 사진展

은암미술관 8일까지...17점 전시

사진작가 리일천이 은암미술관에서 8일까지 ‘Chaosmos, Space-time(時空間)’전을 연다.

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카오스모스 주제를 가지고 공간의 시간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작품 17점을 선보인다. 카오스모스(chaosmos)는 카오스(chaos·혼돈)와 코스모스(kosmos·질서)가 합쳐진 말로, 상호 보완적이고 중첩된 개념이다.

작가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사공간과 혼돈적인 차원의 개념을 사진의 전시각적 개념(여러 차원의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발견하는 작업)으로 바라보고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은 이후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촬영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 시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Traces of time’

리 씨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한국사진작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큐 평생기획 ‘광주 미술인 100인 사진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

서울 사비나미술관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

기획전시 온라인 생중계 일회성 전시 영구적 감상

서울 사비나미술관이 최근 선보인 ‘버추얼 전시감상 투어’(사진)는 전시를 입체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재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술관 홈페이지(biz.panosis.kr/savina/docent)를 통해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시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촬영기법과 큐레이터의 음성 해설이 결합됐다. 현재는 지난 3월 진행한 기획전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출품작을 감상하고 큐레이터의 음성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사비나미술관은 진행 중인 ‘컬러 스테디’전도 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소개하는 한편 소장품을 활용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조만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사비나미술관은 2010년 국내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모바일을 통해 전시 정보와 음성 해설, 작가 인터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프리덤

FREEDOM

이카데미상상식 남우조연상 <셀마> <레리 맥과이어>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사론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